

아파트 ‘무인 택배’ 입주민·택배기사 불만 폭발

광주 7곳 설치 운영 중
관리사무소 횡포 주민 불편
큰 배송물은 보관 못하고
택배기사에 이용료 덤터기
보관함 설치업자만 재미

광주 일부 아파트 단지가 운영중인 ‘무인택배시스템’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주민 불편 뿐 아니라 택배 기사들에게 수수료까지 부담시켜 이른바 ‘택배기사 등골 브레이크’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고수하고 있는 배경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12일 광주시 북구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부터 관리사무소 옆에 무인 택배보관함 72개(한 개당 가로 42cm·세로 42cm·높이 25cm)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말 택배보관함을 설치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보관함 설치 이후에는 택배 물건을 경비실에서 보관하지 않겠다는 안내문도 부착, 택배 보관함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택배 보관함은 무인 택배 통합시스템 업자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택배 배달 등을 가장해 저지르는 범죄 예방 및 바쁜 업무로 낮 시간 택배 수령이 힘든 맞벌이 부부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이뤄졌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전에는 집에 사람이 없을 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경비원이 택배 기사로부터



누구를 위해 설치하나?

지난 11일 광주시 북구 B0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설치된 무인 택배보관함 앞에서 한 입주민이 무인 택배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보관 중인 물품을 찾고 있다.

물품을 수령·보관했다.

해당 관리사무소가 택배 보관함 설치에 이어 입주민 본인이 배달 물건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모든 택배를 해당 보관함을 통해 찾아가도록 한 뒤부터 주민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보관함 크기 때문에 배·행·어·선고기 등 부피가 큰 배송 물품은 택배 보관함에 보관이 어려워 입주민 부재시 반송 조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예 택배 배송을 주말까지 원 또는 경비원이 택배 기사로부터

현재 해당 서비스는 북구와 광산 지역 7개 아파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아파트는 동일한 무인 택배 시스템을 사용중이다. 또 관리사무소는 택배 보관함을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택배 배달기사에게 전가, ‘갑(甲)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아파트의 경우 2월부터 택배 기사들이 택배보관함에 물건을 맡길 경우 한 개당 200원의 이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우체국 택배를 기준으로 하면 물품 한 개당(5kg 미만) 평균 700~800원의 수익금을 받는 택배 배

달원에게 수익금의 25%~28.6%를 또다시 떼어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과 택배 배달기사의 다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홀소령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배송 금액을 포함해 비용을 치렀는데 재차 보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과 보관 비용을 따로 받아야 무인 택배 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배달 직원들의 실감에도 벌어지고 있다.

주민 불편 뿐 아니라 택배 배달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뒷말이 제기되고

있다.

택배보관함 설치업체 관계자는 “광주지역 7개 아파트에 택배보관함을 설치·운영 중인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설치 전 입주민 동의 90%를 얻어 택배보관함을 설치한 것”이라며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구입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경비사무실 직원이 왜 택배를 대신 받아야 하나냐”고 반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진도 재래시장에 큰 불 설 앞둔 상인 ‘망연자실’

1명 사망·25개 점포 태워

진도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 시장 내 1~2층에 입주한 25개 점포 모두가 잿더미로 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특수를 의식해 점포마다 물품을 가득 채워놓은데다, 입주한 영세 상인 대부분이 화재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망연자실해 하는 분위기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와 화재 경보기 외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웠다.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진도군 진도읍 상설시장 내 2층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 점포에서 잠을 자던 윤모(24)씨가 숨지고 시장 내 입주한 21개 점포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차 26대와 소방대원 100명 등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시장 건물이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등 불이 잘 붙는 자재로 만들어져 유독 가스와 연기가 심하게 발생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미흡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건물은 지난 2011년 화재보험기간이 종료된 뒤 재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입주한 영세상인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대책이 막연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의 상인들이 불타고 있는 상가 건물 앞에서 통곡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특히 상인들이 사이에서는 점포마다 가득 물품을 채워놓고 명절 대목을 준비하고 있던데다, 점포 내 개인 금고에 현금 등을 보관해둔 상인들도 있어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진도군이 지난 2008년 8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상인들이 일부 부담을 해 2층 규모로 지은 것으로, 수산물·야채·그릇 등 점포 25개가 입주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서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던 박모(55)씨는 “설을 대비해 저온저장고에 마른 멸치 등 생선 2700만원 상당을 적재해왔는데 저장고까지 모두 타버렸다”면서 “어떻게 해야될 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진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 인근 공터를 임대, 임시 시장을 운영하고 시장 상인 돕기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최성현 진도부군수는 “설을 앞두고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고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 장소를 마련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평동산단 1번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1번로 M편의점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8% 상태에서 운전 중 정모(34)씨의 카렌스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백모(58)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백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

졌다.

경찰은 정씨가 당시 운전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나주로 가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백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최승환기자 srchoi@kwangju.co.kr



야생 멧돼지에 부상 당하면 최대 500만원 보상해준다

환경부, 다음달부터 시행

최근 도심에까지 멧돼지가 출몰하는 가운데 야생동물 때문에 부상을 당하면 사고 발생지역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해주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농업, 임업, 어업 등 경제활동 중일 때 또는 일상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이른바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수렵 등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 때문에 다치게 됐을 때도 보상받지 못한다.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제비 등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사고 발생지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고 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잠자는 중학생 방에 번개탄 ... 누가 피웠나?

10대 중학생이 번개탄이 피워진 방에서 잠을 자다 누나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다. 경찰은 사건 이후 부모가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딸과 통화한 점 등을 토대로 부모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12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께 목포시 상동 W아파트에서 번개탄이 피워진 방 안에 A(14)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누나(1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출동한 119에 의해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누나는 경찰에서 “잠을

의식 없는 상태로 쓰러져 누나가 발견 소망서 신고 부모 주식 실패로 빚더미 동반자살 시도 여부 조사

자다 이상한 냄새가 나 일어나보니 집 안에 연기가 가득했고 동생의 방 안에는 스테인리스 그릇 안에 번개탄 1개가 불이 붙은 채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남매는 경찰 조사에서 “번개탄을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집에 도난당한 흔적

이 없는데다, 이들 남매가 사는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당일 새벽 A군 부모가 들어왔다가 오전에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기록에 있는 부모의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또 사고 직후인 오전 11시께 A군 부모가 딸과 “말리 왔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점, 이들 부모가 주식 실패 등으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군 부모가 동반 자살을 시도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히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전화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각화지점: 268-6163 동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도대체 스피치 말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천하 문외하사님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입학문의 ▶ 062)605-1115, 1024, 1021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4. 2. 10(월) ~ 17(월)
· 전 형 일 : 2014. 2. 19(수) 오후 3시

■ 각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 학 원	학위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목회학과(D.Min.)	○
		신학과(Th.M.)	○○
		신학연구학과(M.A.T.)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신학과(M.Div.)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모집학년	지 원 자 격	모집인원
2학년	2학기 이상 수료 및 32학점 이상 취득자	○명(주·야)
3학년	4학기 이상 수료 및 64학점 이상 취득자	○명(주·야)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조로 36